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

Premarital Preparation Program for better Life

- Focused on NGO's movement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겸임교수 이영호\*

강사 최보아\*\*

박사과정 서미란

교수 지영숙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dditional Professor : Lee, Young-Ho

Lecturer : Choi, Bo-A

Doctoral Course : Seo, Mi-Ran

Professor : Chi, Young-Sook

---

## <Abstract>

In this study, an enhanced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is introduced. The program has recently been systematized through adjusting and updating different existing marriage preparation programs. The proposed program consists of six main sessions, organized into three 2-session sets.

Through sessions 1 and 2, couples preparing for marriage are to focus on marital life by planning their lives as husbands and wives. They also discuss how to build a happy marriage. In sessions 3 and 4, the couples are to discuss how to organize their activities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s. Finally, in sessions 5 and 6, the couples learn practical skills necessary for a happy marriage.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at NGOs to promote wholesome wedding ceremonies and healthy marriages for single men and women who are preparing to get married. This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o help build strong families.

---

▲주요어(key words) :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시민단체(NGO), 결혼설계 (marital life planning), 관계향상 (relationship enhancement), 자아존중 (self - esteem), 관계매너(manners), 성(sex)

## 1. 서론

2003년 1월 대만에서는 혼인적령기의 남녀에게 '행복한 가정

만들기'교육을 시키도록하는 '가정교육법'이 제정되었다.(정용환, 2003). 그리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플로리다주, 미네소타주에서는 결혼준비 및 유지에 관한 법안과 결혼전 교육법안을 입법화하였다(정현숙, 2003).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속에서 가족원이 생활하고 인간성장과 발달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

---

\* 주저자 : 이영호 (E-mail : WOOLEE62@hitel.net)

\*\* 교신저자 : 최보아 (E-mail : fesseln@hanmail.net)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정민자, 1995).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내는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출발하려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준비를 시키는 일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입법청원(한나라당, 2003)되어 있으며 이는 가정학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향하여 그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결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간이 성장하여 적령기가 되고 배우자를 만나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결혼의 사회적 의미를 보면,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음”이라 하였다. 부부로의 맺음은 남녀 성인이 정서적, 법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이고, 대부분의 결혼은 결혼식을 통하여 발표되고, 결혼생활이 영속되리라는 희망으로 시작된다. 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정서적, 법적, 사회적 관계와 절차와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녀가 모여 이루는 하나의 완결 단계이고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 구성의 시작이 되며, 부부는 인간 사회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지영숙, 1998). 이렇듯 결혼의 의미는 두 사람이 모여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새롭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일이며 나아가 건전한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면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성장해온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생활의 표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습관화된 일상의 많은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남녀는 서로 다른 결혼을 꿈꾸면서 자신에게만 더 몰입하고 상대가 따르기만을 기대한다면, “나”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가치와 목표와 표준을 조율하지 않은 최선은 자칫 상대방에게 더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 주장을 접을 줄 알고, 상대를 인정하고, 양보할 줄 아는 친밀감과 의존성, 그리고 상대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결혼 생활은 순풍에 돛 단 듯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함께 쌓아 올려야 하는 돌탑과도 같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두가 너무 바쁘고, 성장과정에서도 가족이 함께 하는 공유시간이 적으며, 각

자 따로따로 활동하고 서로가 매우 독립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은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보다 강해짐으로써, 가정이 공동화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역사적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많이 보존하여 왔고 특히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졌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정보화의 등장은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변화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은 세대간, 남녀간에 더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분열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2002년 현재 하루 평균 840쌍이 혼인하고 398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하루 평균 1150쌍이 혼인하고 147쌍이 이혼하던 것과 비교할 때 혼인하는 쌍은 27%가 줄고, 이혼하는 쌍은 171%가 늘어난 셈이라고 한다(한겨레, 2003. 3.28일자).

이제 이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급증하는 통계적 수치가 우리를 안타깝게 함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불화와 부적응의 파장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치러야 할 댓가를 점점 크게 만들어 그 영향은 더욱 헤아리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한가지는 결혼 준비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생애적 과업의 ‘성공적인 첫 단추 끼우기’를 위해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결혼준비교육의 기원을 세계 제2차대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도 미국, 영국 등지에서 결혼준비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준비교육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고, 가정학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특히 1997년 말에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경제문제와 그로 인한 가족문제가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민단체에서도 결혼준비교육을 관심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이하 생개혁)의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생개혁은 1998년부터 혼례문화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의 회원단체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이하 가선회)는 건전혼례문화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동안 생활개혁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결혼준비교육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가(보건복지부)의 지원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효과면에서는 성급히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이 학계를 넘어서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국민일반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업적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여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준비교육의 개념과 시기적 흐름

결혼준비교육의 근원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관심학문은 신학과 심리학이 위주였고, 결혼준비는 종교의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혼은 의식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즉, 결혼의식 자체의 본질과 의미에 중요성이 부과되어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병리학적이거나 역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어 개인적 정신이 건강하다면 결혼생활도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오윤자, 1998). 그 후 1924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Ernest Groves"가, 1929년에 콜럼비아 대학에서는 "Prepar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Living"이라는 정규과목이 개설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결혼준비교육의 관점이 개인에게서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여 관계속에서의 유대감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 하에 Rutledge(1966)은 결혼준비의 기초적 요인으로 자아의 발견, 개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결혼준비교육은 준비의 개념보다는 문제 발생이후의 치료와 해결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Mace(1979)는 결혼준비를 통하여 촉진적 성장을 추구하고 관계와 욕구향상을 위한 수단과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중요시하였으며, Olson(1992)은 결혼준비과정을 통한 예방적 결과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즉, 결혼준비교육은 "준비"의 관점으로 바뀌어 예방과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즉, 결혼준비교육은 개인중심의 치료적인 관점의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교육에 의한 관계지향적인 인간 잠재력의 향상적인 접근으로 발전되어 왔다(오윤자, 1998).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준비교육은 예방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범위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광의의 결혼준비교육과 협의의 결혼준비교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며, 일반적인 교양교육으로서 과거부터 이미 가정이나 학교 등을 통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로서의 결혼준비교육은 결혼과 가족생활교육(Marriage and family life education)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부부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은 예비부부가 결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공식적인 사회화 기회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과

구분된다(박미경·김득성, 1997).

한편, 우리나라의 결혼준비교육은 크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70년대에는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인데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신부대학」, 대구대학교 부설의 「구미가정복지대학」 등에서 결혼준비교육이 시행되었으며 이 시기의 결혼준비교육은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리, 예절, 살림살이 등의 일반교양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박미경, 1996).

80년대의 결혼준비교육은 YMCA의 「결혼강좌」, 한국가정법률상담교육원의 「혼인준비교실」, 두란노서원의 「결혼예비학교」, 순복음교회의 「결혼예비교실」, 서강대학교의 「결혼준비특강」 등이 있다. 이시기의 결혼준비교육의 특징은 대학과 지역사회기관뿐 아니라 교육실시기관이 종교기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결혼대상자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되어졌다는 점, 또한 강의 방식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를 지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결혼준비교육이 종교기관으로 더욱더 확대되었으며,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혜석(1990)의 결혼준비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정민자(1994)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 오윤자(1994)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의 좁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 등이 있다.

대표적인 결혼준비교육 연구와 세부 주제는 <표 1>과 같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들은 모두 대상자가 예비부부인 점으로 볼 때 좁은 의미의 결혼준비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주로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성과 의사소통 기술을 중요한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친밀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역할 기대 및 갈등해결에 초점을 두기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심리적인 면에서는 깊이가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관계향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관리나 가사노동 등의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는 장단기 가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관리적인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상의 교육요구와 문제의식은 시민단체에 의해 수용되어 1990년대 말에 생개협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어 있다. 생개협은 기초적인 강좌의 주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안하여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다시 시민단체에 공모하는 형식으로 2002년 결혼준비교실을 대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결혼준비교실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 1) 생개협은 결혼준비교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회원단체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부간 의사소통, 건강한 성생활, 장단기생활설계라는 굵직한 주제를 제시하고 회원단체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lt; 표 1 &gt; 결혼준비교육 연구와 세부 주제

프로그램 명칭	연구자	내 용												대상자	실행 여부	후원 여부
		결혼이해	자기이해	친인척관계	사랑친밀감	역할기대	의사소통	갈등해결	성	재정관리	가사노동	건강관리	결혼식			
결혼준비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김혜석 (1989)				○		○	○					○	예비부부	실행안함	×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민자 (1994)	○	○				○		○					예비부부	실행함	×
건강한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유영주 (1995)	○		○	○		○		○	○				예비부부	실행함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박미경 (1997)	○	○	○		○	○	○	○	○	○	○		예비부부	실행함	×
우리는 예비부부	오윤자 (2001)			○	○		○		○				○	예비부부	실행함	×
결혼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	정미향 (2001)	○	○		○	○	○	○						예비부부	실행함	×

## 2. 시민단체에서의 결혼준비교육

### - 생개협을 중심으로 - 2)

시민단체에서의 결혼준비교육은 1980년대에 YMCA에서 이루어진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으나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생개협은 1998년부터 가정의례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혼례문화운동을 펼쳐왔다. 1998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과소비적인 혼례문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펼쳐졌다. 한국인 혼례비용실태조사와 혼례문화 개선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1999년에도 그 추세는 계속되어 고비용혼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수입실태조사 및 특1급호텔 결혼 비용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혼례문화운동은 혼례유발교통비 및 혼잡비용줄이기 캠페인과 건전혼례교육을 병행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으로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혼례운동도 비용절감을 위한 수량적 측면에서의 운동의 설득력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혼례문화운동을 지향하게 된다. 2001년도에는 여러 단체에서 결혼준비교실과 캠페인등 다양한 혼례문화운동을 펼치게 된다.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는 혼례의 주체는 결혼당사자이어야 하며 혼례당사자가 혼인 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가치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혼례, 이렇게 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 인생관, 결혼 등에 대

한 강좌와 비디오시청, 글짓기 대회를 열었고,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는 “대형예식장주변 교통량저감실천운동”을 대형 예식장 14곳에 홍보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신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혼례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결혼식의 간소화와 혼수문제, 혼례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참되고 아름다운 혼례문화교실”을 9개 도시에 걸쳐 11회 강의와 워크샵을 지부의 회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청년여성문화원에서는 “어머니가 준비하는 혼인준비교실”을 실제 혼례를 주관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혼례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검토후반서 아름다운 혼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혼례문화운동이 다양한 가운데 결혼준비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결혼준비교실의 지침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2년도에는 4가지 큰 주제를 제시하고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주요 4개 단체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이라는 프로그램명을 일치시키고 각각 혼인준비교실을 실시하였다.(표 2 참고)

“행복한 결혼생활”은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와 준비, 결혼생활에 부딪히게 될 어려움과 갈등 예방 및 대처에 도움을 줌으로서 건강한 부부관계 및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 예비부부들에게 올바른 결혼상(結婚像)제시, 결혼준비과정에서 있어서의 새로운 결혼문화 창출이라는 취지 하에 실시되어졌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대한주부클럽과 청년여성문화원,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YMCA에서 실시되었는데 1차와 2차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표 2>.

1차 혼인준비교실은 200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2) 본 내용은 생활개혁운동협의회의 1998년-2002년까지의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연구자들이 정리한 것임.

< 표 2 > 생개협소속 시민단체의 결혼준비교육 주제<sup>3)</sup>

실시기관	회수	내 용														대상자 (참여자수)	
		결혼 이해	자기 이해	사랑 친밀감	역할 기대	의사 소통 기술	갈등 해결	성	재정 관리	가사 노동	자녀 출산 양육	친인 척 관계	가정 윤리	생활 설계	예절		혼수 준비
YMCA	1차	○				○		○			○		○	○			시민단체종사자 미혼남녀 (10명내외)
	2차					○		○	○								지역거주 미혼남녀 (10명내외)
가정생활 개선 진흥회	1차	○				○			○	○				○	○		예비부부,미혼남녀(15명)
	2차	○				○		○	○	○				○	○		미혼남녀(80명)
	3차	○	○					○	○	○				○	○		미혼남녀(40명)
청년여성 문화원	1차	○	○			○		○						○	○	○	예비부부, 부모세대 (40여명)
	2차	○	○			○		○						○			예비부부, 부모세대(20여명)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	1차	○	○					○						○	○	○	예비부부,미혼남녀, 부모세대(30여명)
	2차	○				○		○						○			미혼남녀, 부모세대(30여명)
	3차					○		○						○	○		미혼남녀, 부모세대(30여명)

춘천 YMCA,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청년여성문화원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춘천 YMCA에서는 총 5회로 의사소통, 성, 가정윤리, 가정교육, 생활설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는 총 4회로 결혼전반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기술, 생활설계, 예절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청년여성문화원에서는 총 5회로 자기이해, 의사소통, 성, 생활설계, 결혼준비, 결혼예절, 결혼전반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졌다.

2차 혼인준비교실은 200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의정부 YM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청년여성문화원,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 실시하였다. 의정부 YMCA에서는 총 4강좌로 가정경제, 의사소통, 성생활, 평화로운 가정만들기로 구성되어졌으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총 3회로 서울에서 두 번, 청주에서 한번 실시되었다. 서울 1차는 총 5강좌로 결혼이해, 생활설계, 성, 자기이해, 결혼준비. 예절의 주제였으며 서울2차는 결혼이해, 성, 의사소통, 예절, 청주에서는 예절, 성, 의사소통, 결혼준비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청년여성문화원에서는 총 5

강좌로 생활설계, 자기이해, 의사소통, 성, 예절이,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는 총 3회로 한양여대에서 3회가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결혼이해, 의사소통, 사랑/친밀감, 성, 예절, 생활설계로 구성되어졌다.

생개협의 결혼준비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결혼상(結婚像)과 새로운 결혼문화 창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생개협의 결혼준비교실은 다른 기존의 교육들과는 달리 예절과 혼수준비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첨가되어졌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심리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설계와 자원관리에 관심을 두고 기존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준비교육이 결혼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주제로 채택이 되어있고 그 대상이 예비부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교제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 등의 과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주제가 첨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각 단체에서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을 살펴보면 예비부부의 참여도가 낮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3) <표 2>의 각단체의 교육주제는 연구자들이 각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교육자료집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 III.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시안

본 연구에서 생개협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결혼준비교육이 학계의 관심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가정해체현상에 대한 예방과 건강가정육성이라는 과제는 국민과 함께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많은 대상에게 실시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예비부부로 규정하였던 대상을 미혼남녀로 확대할 필요성에서 우선적으로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시안을 작성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로서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확정짓고자 한다.

미혼남녀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우선 프로그램명은 '캠퍼스 커플을 위한 결혼준비교실'로 정하고 성관대학교에서 2002년 11월 중에 실시하였다. 건전한 이성교제와 배우자선택 등의 과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주제를 첨가하여 결혼예비단계에서 결혼의 실제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6개의 주제 -①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② 사랑과 결혼 ③ 관계향상 대화법 ④ 생활설계 ⑤ 성에 관한 이해 ⑥ 혼례예절 - 로 구성되었으며, 11월 9일과 11월 16일 2주간 각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각 주제에 합당한 강사와 연구원으로, 주제당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의 배정되었으며, 주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명의 사회자가 일관적으로 주제와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하여 프로그램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사용된 장소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그 성격을 고려하여 풍선으로 장식하고 다과와 간식을 준비하여 이벤트같은 특별하면서도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별 내용과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의 주제별 내용

##### 1)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첫 주제는 결혼전반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성공적 결혼이란 어떤 모습과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결혼의 시작인 예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이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즉 가정이란 서로 다르게 성장한 남녀 성인이 정서적, 법적, 사회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주요기능을 행할 수 있는 가정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가정생활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만한 가정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헌신, 자기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함께 시간 보내려는 노력, 상대의 인정과 우리감의 조화로우미 필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결국 결혼이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상기시켰다.

다음에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즉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란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기쁨과 행복, 갈등과 고통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된 목표 하에 독립된 존재이면서 또한 서로의 욕구충족에 힘이 되는 동반자 관계의 유지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결혼 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즉, 건전한 혼례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시작임을 일깨우는 내용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체면문화와 상술에 휩쓸려 형식적인 예식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을 짚어보고, 결혼 당사자에게 진정 의미있는 결혼예식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그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 주제는 가정은 인간 삶의 원형으로서 복지감을 실현하는 곳이고, 사회적으로는 복지공급의 기본단위로서 결혼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개인에게는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자아 실현의 가능성을 얻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정과 복지의 공급원이 됨을 강의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2) 사랑과 결혼

'사랑과 결혼'의 제목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시간은 강의식 설명과 참여적 게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사랑의 유형과 관계를 체험적인 작업을 통해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랑의 정의를 참여자들과 대화식으로 찾아봄으로써 사랑에 대한 이해를 공감적으로 끌어낸 후 워크시트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애정형척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의 사랑의 유형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을 강의함으로써 각 유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은 '너 나 얼마나 알아?'라는 간단한 문답식 게임을 통해 참여자들이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게임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하는 게임으로서 실제 커플을 놓고 게임이 진행되었기에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참여적이고 화기에애하게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잘 못 되었을 경우 커플이라는 친밀함으로 인해 그만큼 더 부정적으로 커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여 순간적으로 몇몇 커플의 분위기가 안좋아지는 측면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런 반응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당황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란 것이 서로에 대한 실질적 '앓'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이 보다 건강하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좋은 감정에 빠져 있던 커플들을 일깨워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배우자 선택이론과 배우자 선택 기준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고 다시 '배우자 자질 경매 게임'을 진행하였다. 배우자 자

질 경매 게임은 남, 녀 각각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한 후 참여자들에게 얼마의 게임 화폐를 주어 여성은 남성의 각 자질에 대하여,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각 자질에 대하여 경매하여 갖도록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가치관과 성향에 대해 새삼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커플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감의 가치관과 성향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게임을 통해 본 커플들의 반응은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방이 선택한 것이 본인의 생각과 다를 경우 놀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야유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이 게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 3) 관계 향상 대화법

‘관계향상 대화법’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세 번째 주제 역시 강의와 참여자들의 체험적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대화법은 대화 기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체 틀과 흐름을 모양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자세부터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었다.

먼저 대화에 임하는 기본자세로 사고방식의 흐름에 따라 대화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습게임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 흐름을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부정적 사고방식에는 자신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자신을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었다. 다음으로는 대화의 원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관계에 따라 대화법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지향적 대화’는 공격적인 관계,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것으로 충고, 지시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친밀한 관계에서는 대화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연인이나 부부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칭찬이나 지지, 격려 기법이 사용되는 관계지향적 대화법의 습득과 훈련이 필요함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친밀한 관계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었다. 여기서는 먼저 기본목록어를 통해 다양한 기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과 상대방이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등을 연습을 통해 훈련해 보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대화법으로 ‘나 전달법’을 연습해 보았다.

대화법의 마지막에는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대화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남녀간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갖는 시간을 갖었다. 대화법은 많은 정보와 연습이 필요한 주제로 1시간 20분 동안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하였으나 단순한 대화기술보다는 기본자세부터 간단한 대화기술을 훑어 보고 한번 연습해 봄으로써 대화법에 따라 어떻게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 4) 생활설계

두 번째 주 처음의 주제로 열린 생활설계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생활을 계획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임을 인지시키고 자신의 삶의 점수를 그래프화 하여 평가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었다. 이것은 결혼이란 사건을 단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 다음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활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었다. 즉 ‘건강, 마음, 인간관계, 경제 생활시간, 생활공간, 생활기술’을 표로 만들어 각 칸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계획을 적어보게 함으로써 생활의 체계와 균형잡힌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결혼과 관련하여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커플이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로 설정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생활목표에 따라 표준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들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혼에 대한 현실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커플들은 감상적이고 환상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적이고 책임있는 실제적인 결혼생활의 측면들을 깨닫고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봄으로써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는 효과를 얻었다.

### 5) 성에 관한 이해

신혼기 결혼생활에 있어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5번째 주제로 실시한 성교육에서는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부부의 성이 갖추어야 할 측면을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주고,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를 성심리 측면과 성반응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성에 대한 성적 적응을 돕게 구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피임법에 대하여 남성의 피임법과 여성의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으로 케겔운동의 효과와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었다.

성교육은 결혼을 앞둔 커플 대상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질문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채워졌다.

### 6) 혼례 예절

커플들이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할 때 막막해 하는 부분이 혼례 예절이라는 의견에 따라 결혼준비교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제로 약혼에서 결혼식까지 커플들이 치루게 되는 각종 의식에 대한 의미와 오늘에 맞는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의식의례를 살펴보고 결혼 후 부부간의 생활예절과 친, 인척간의 예절과 호

칭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먼저 약혼식에 있어서 궁합의 의미를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약혼식과 양가 부모 상견례의 의미와 건전한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며 제안하는 방식으로 혼례의식에 대한 구체적 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커플들의 혼수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체면치레보다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마련하는 신혼살림과 예를, 예단에는 어느정도의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들이, 택일 등등의 의미와 오늘날의 폐단, 건전한 의식 형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었다. 그 다음 구체적인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장소 선정과 주례, 사회자 선정, 식순, 결혼 예복과 사진 촬영, 하객 초청, 축의금 문화, 피로연, 신혼여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결혼식을 의미있는 이벤트로 만들 수 있음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전통예절의 장점을 살리고 오늘날의 사회 상황에 맞게 결혼 의식을 프로그램 진행자가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즉 폐백을 신혼여행 후 가족모임으로 갖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상술에 의해 의미없이 지나가는 오늘날의 폐백의 허점을 깨닫게 하고 커플의 의지로 인해 얼마든지 형식적 의식을 의미있는 이벤트로 바꿀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부부간의 예절과 친, 인척간의 예절에 대하여는 먼저 시가와 처가 호칭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커플들은 사실 호칭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를 보여주었고, 호칭을 익히면서 결혼에 의해 맺어지는 가족들의 범위와 복잡함,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 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위와 같이 진행하여 본 결과, 짧은 시간에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프로그램 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내용을 체계화하거나 감응하여 습득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정보 인지와 약간의 체험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에 참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진지한 토론과 감응을 하기보다는 참관적인 자세나 장난스러운 자세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측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주제를 더 단순화 시키고 주제당 할당된 시간을 늘려서 참여자들이 좀더 충분하고 심층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정보전수자의 역할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그에 따른 체감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좀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인식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을 넓은 개념의 '커플'로 함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서 자신이 알지 못한 파트너의 상이한 모습을 보거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트너가 잘 못 알고 있을 경

우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커플간에 작은 마찰이 나타남으로써 일순간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위태로워지거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커플간의 다툼으로 이어져 후속 프로그램의 참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보다는 감상적인 애정 관계에 있었던 연인들에게 서로의 실체를 더 잘 알게 함으로써 올바른 배우자상을 생각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으며, 후속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여대상을 적령기를 넘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성향과 결혼에 대한 생각과 준비, 자아의 성향과 상대 남녀의 성향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와 함께 좀 더 세분화된 프로그램 내용도 준비하여 참여자들의 관계수준에 맞는 정보와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 강사가 주제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사람의 사회자가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수방법에 있어서도 될 수 있도록 강의식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IV.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안)

### 1. 프로그램의 방향설정 및 목표

지금까지 시행된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여,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하에 새롭게 개발하도록 한다.

첫째,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이후의 준비와 더불어서 이성교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배우자 탐색 전과정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둘째, 프로그램 대상자가 이전까지 커플 중심의 관계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인중심으로 바꾸어 개인의 인생설계와 자원관리 및 스스로의 가치관 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서 출발하여 두사람의 관계로 그리고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결혼에 대한 주체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개인: 세션 1, 2)와 상호작용을 돕는 행동(관계: 세션 3, 4)과 실천적 기술(적용: 세션 5, 6)이 모아져서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통일성을 중요시하여, session의 연계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 2일 동안의 세미나 형식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설정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결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결혼준비를 할 수 있다.” 이다.

각 프로그램의 session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session 1.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설계와 그에 따르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session 2. 본인의 성격과 사랑의 유형을 파악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 session 3. 타인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session 4.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커플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session 5. 커플관계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개념과 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session 6. 현행 혼례식의 부정적,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혼례식을 설계해 봄으로써 건전하고 주체적인 혼례식을 준비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시행 및 평가계획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절한 인원수는 15~20명이 적당하며,

교육대상은 미혼남녀이되 반드시 커플일 필요는 없다. 적절한 교육장소는 2일 동안의 연속교육인 점을 미루어볼 때 숙박이 가능하며, 세미나장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건 무방하다. 프로그램의 일정 예시안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이 시행될 장소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강의식의 자리 배치보다는 둥글게 혹은 ㄷ자형으로 배치를 하며, 각 session별 준비물 이외에 칠판이 필요하다.(회차별 강의안 참조) 그리고 각 session의 특성에 따라서 비디오 등의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프로그램의 평가 도구는 크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나눌 수 있다. 사전검사는 교육실시전에 실시되는 검사로 결혼생활의 준비를 측정하는 태도문항과 앞으로 진행될 각 session의 내용을 묻는 지식사전평가의 두가지로 구성한다. 또한 각 session이 끝날때마다 session의 내용의 지적인 향상을 묻는 지식사후평가를 묻는다. 모든 교육이 끝날때에는 결혼생활의 준비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후평가를 한다.

3. 프로그램의 강의안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회차별 강의안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3 > 프로그램 일정 예시안

<제 1일>		<제 2일>	
14:00-16:00	session 1	10:00-12:00	session 4
16:10-18:10	session 2	12:00-13:00	점심식사
18:10-19:00	저녁식사	13:00-15:00	session 5
19:00-21:00	session 3	15:10-17:10	session 6

< 표 4 > 프로그램의 평가

평가 종류	태도평가		지식평가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평가 시기	프로그램 실시전	프로그램 실시후	프로그램 실시전	각 session 종료후
평가 내용	결혼준비태도	결혼준비태도	결혼준비지식	결혼준비지식

< 표 5 > 프로그램의 회차별 주제

회차	주제명	회차	주제명
1 session	결혼이해하기	4 session	관계향상대화법
2 session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	5 session	건강한 성을 위하여
3 session	멋진인생을 위한 자신 가꾸기	6 session	나의 혼례 디자인

session 1 : 결혼 이해하기(총 120분)					
교육 목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설계와 그에 따르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교육 목표	①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생활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생활설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결혼까지의 생활의 목표와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15분)	① 진행자 인사, 일정소개 사전평가	진행자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한다.		5	이름표,
	② 자기소개	자기소개지를 사용하여 애칭, 결혼관등 본인을 소개한다.	활동	10	자기소개지
전개 (100분)	①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② 결혼전반에 대한 이해 ③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결혼생활의 의미 등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강의한다. 행복 그래프를 통하여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 이해한다.	강의 강의	15 10	행복그래프
	② 생활주기 ③ 생활주기 개념 이해 ④ 본인의 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주제별 특성 이해한다. 본인의 생활주기를 탐색하여 작성한다.	강의 활동	10 15	생활주기표
	③ 생활설계 ④ 생활설계 개념 이해 ⑤ 생활의 제측면 ⑥ 생활목표 및 표준설정	생활설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생활측면표를 사용하여 생활의 제 측면 탐색한다 목표설정방법을 인지하고 결혼시기까지의 생활목표 및 표준설정을 한다	강의 활동 활동	10 20 20	생활측면표 생활목표표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② 다음시간 예고	생활설계, 목표설정, 표준설정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 예고한다		5	

session 2 :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총 120분)					
교육 목적	본인의 성격과 사랑의 유형을 파악하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목표	① 본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② 본인의 성격유형을 찾을 수 있다. ③ 본인의 사랑유형을 찾을 수 있다. ④ 배우자선택이론을 통해 본인의 배우자선택 과정을 찾을 수 있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5분)	① 지난시간에 대한 환기 ②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개	지난시간의 중요개념을 환기한다. 이번 시간의 배울 내용 소개한다.		5	
전개 (110분)	① 자존감 높이기 ① 본인 장점 소개하기	본인의 장점만을 스스로 발표한다.	활동	10	장점소개표
	② 나의 성격 파악하기 ① 에니어그램검사	에니어그램 약식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10	에니어그램
	② 나의 성격 파악하기 ② 에니어그램 이해	에니어그램의 이해와 적용법을 강의한다.	강의	10	
	② 나의 성격 파악하기 ③ 본인 성격유형 탐색	상황별로 본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한다.	활동	15	상황별 표
	③ 사랑이해하기 ① 사랑의 삼각형 ② 사랑의 특성검사 ③ 본인의 사랑특성탐색	사랑의 삼각형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사랑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특성을 검사한다 척도를 통해 본인의 사랑특성을 이해한다	강의 활동 강의	10 10 10	사랑유형표
④ 배우자선택 ① 배우자선택이론 ② 배우자자질 경매 ③ 배우자선택 토론	① 배우자선택이론	배우자선택의 과정과 특성 이해	강의	10	
	② 배우자자질 경매	배우자자질 경매게임(남녀별로)	활동	20	게임도구
	③ 배우자선택 토론	경매게임을 통한 느낌 나누기	토론	10	
정리 (5분)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② 다음시간 예고	사랑삼각형, 배우자선택이론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 예고		5	

session 3 : 멋진 인생을 위한 자신 가꾸기(총 120분)					
교육 목적	타인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예절과 매너를 배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교육 목표	① 본인의 몸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다. ② 데이트 시 갖추어야 할 매너를 습득한다. ③ 올바른 존칭과 호칭을 말할 수 있다. ④ 올바른 혼례예절을 행할 수 있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5분)	① 지난시간에 대한 환기 ②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개	지난시간의 중요개념 환기한다.  이번 시간의 배울 내용 소개한다.		5	
전개 (110분)	① 나의 몸가짐 바르게하기 ㉠ 자신에 대한 매너 ㉡ 자신에 대한 매너 연습	본인에 대한 매너(자세, 표정, 말씨)를 이해한다. 간단한 매너를 연습해본다.	강의 실습	10 10	거울
	② 데이팅에서의 매너 ㉠ 데이팅매너 이해하기 ㉡ 데이팅매너 연습하기	데이팅에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매너를 이해한다. 데이팅 매너의 실제적인 실습을 해본다.	강의 실습	15 15	
	③ 손윗분들과의 매너 ㉠ 기본적인 호칭과 존칭 ㉡ 호칭과 존칭연습하기 ㉢ 바람직한 매너 연습하기	기본적인 호칭과 존칭에 대해 이해한다. 상황별 호칭과 존칭을 연습한다. 손윗분들 관계에서 바람직한 매너를 연습한다.	강의 실습 실습	10 15 10	
	④ 혼례 예절 ㉠ 공평한 부부관계 맺기 ㉡ 혼례예절 배우기	부부간의 공평성에 대해 이해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검토한다. 공평한 부부관계에 대한 결혼관을 세운다.  혼례예절(절하는법 등)을 실제로 배운다.	강의 실습	10 15	
정리 (5분)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② 다음시간 예고	기본호칭, 혼례예절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 예고한다.		5	

session 4 : 관계 향상 대화법(총 120분)					
교육 목적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커플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교육 목표	① 자신의 대화성향을 인지한다. ② 대화의 원리를 파악한다. ③ 대화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남녀에게 필요한 대화 기술에 대해 익힌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5분)	① 지난시간에 대한 환기	지난시간의 중요개념을 환기한다.		5	
	②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개	이번 시간의 배울 내용을 소개한다.			
전개 (110분)	① 대화를 위한 기본자세 ③ 사고방식과 관점 ⑥ 자기 안의 콤플렉스	자신의 사고방식이 성공/실패회로 중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장, 단점 평가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콤플렉스 찾아본다.	강의 활동	10 10	대화회로표 콤플렉스표
	② 대화의 원리 ④ 대화의 원리 ⑤ 관계지향적 대화법과 사실지향적 대화법	관계지향적 대화법과 사실지향적 대화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관계지향적 대화법을 연습한다.	강의 활동	10 20	관계지향 대화법표
	③ 대화의 기술 ④ 기분에 대한 감각 일깨우기 ⑥ 기분 말하는 법 ⑦ 긍정적 나 전달법	기본목록어를 만들어 봄으로써 기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기분을 말하는 대화법을 연습한다. 긍정적 나 전달법을 연습한다.	활동 활동 활동	15 15 15	기본목록어표 기본대화표 나전달법표
	④ 남녀에게 필요한 대화기술 ⑤ 남녀에게 필요한 기술이해 ⑥ 남녀에게 필요한 대화기술 적용	남녀에게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이해한다. 남녀에게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연습한다.	강의 활동	5 10	대화법표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평가 ② 다음시간 예고	관계지향적 대화, 나전달법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한다.		5	

session 5 : 건강한 성을 위하여 (총 170분)					
교육 목적	커플관계의 성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에 대한 개념과 성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목표	① 건강한 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② 피임의 방법을 습득하고 낙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임신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10분)	① 지난 시간에 대한 환기 ②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개 ③ 성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지난시간 중요개념을 환기한다. 이번시간 배울 내용을 소개한다. '나는 성이라 하면 ( ) 가 떠오른다.' 란 주제로 자유 토론한다.	활동	5 5	문장 종이
전개 (100분)	① 건강한 성에 대한 이해 ㉠ 건강한 성이란? ㉡ 성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 (성심리)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을 강의한다. 성심리차이표를 이용하여 성에 있어서의 남녀차를 알아본다.	강의 활동	10 15	성심리표
	② 피임 ㉠ 피임의 중요성 ㉡ 피임의 방법 ㉢ 피임에 대한 경험사례 소개	피임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임신을 선택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다.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피임에 대한 경험 사례를 듣고 각 방법에 대해 체험적으로 이해한다.	강의 강의 강의	5 10 10	피임관련 약품과 도구들
	③ 낙태 ㉠ 낙태시 태아와 산모의 상태 ㉡ 낙태 후유증 ㉢ 낙태 경험자의 사례 소개	낙태시의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대해 이해한다. 낙태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해 강의한다. 낙태경험자의 사례를 통해 성생활과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의 강의 활동	10 5 10	낙태와 관련된 비디오
	④ 임신과 태교 ㉠ 준비된 임신의 중요성 ㉡ 임신시기와 자녀수 설계 ㉢ 태교의 시기와 효과, 방법	준비된 임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본인의 임신시기와 자녀수를 인생주기를 통해 설계한 후 발표한다. 태교의 시기와 효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 활동 강의	5 10 10	생활주기표
정리 (10분)	① 커플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지침 ② 평가 및 다음시간 예고	남성과 여성에게 필요한 성에 관한 기술을 강의한다. 다음수업의 내용 및 시간을 예고한다.	강의	5 5	남녀의 신체도

session 6 : 나의 혼례 디자인 (총120분)					
교육 목적	현행 혼례식의 부정적, 긍정적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혼례식을 설계해 봄으로써 건전하고 주체적인 혼례식을 할 수 있다.				
교육 목표	① 현행 혼례식의 부정적 문화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문제를 인지한다. ② 사회에서 행해진 긍정적 혼례식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주관만 뚜렷하면 주체적이고 건강한 결혼식이 가능함을 인지한다. ③ 자신의 혼례식을 설계하고 발표함으로써 준비해 본다.				
교육 순서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시간	준비물
도입 (5분)	① 지난시간에 대한 환기	지난 시간의 중요개념을 환기한다.		5	
	② 이번 시간에 대한 소개	이번 시간의 배울 내용을 소개한다.			
전개 (90분)	① 혼례식의 의미	혼례식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강의	10	
	② 현재 혼례식의 상술화와 그에 따른 부정적 실태 ㉠ 혼례의 상술화 ㉡ 혼례식의 부정적 사례	혼례문화의 상술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인지한다. 혼례식의 부정적 사례를 살펴본다.	강의 토론	10 20	부정적 혼례문화와 관련된 사진, 영상물
	③ 혼례식의 성공사례 ㉠ 혼례식의 성공사례 ㉡ 건전한 혼례에 대한 토론	혼례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본다. 건전한 혼례에 대해 토론한다.	강의 토론	15 10	성공적 혼례식과 관련된 사진, 영상물
	④ 나의 혼례식 설계해 보기	자신의 혼례식을 설계해보고 발표하며, 참여자들과 공유한다.	활동	25	활동시트
정리 (25분)	① 중요개념 재설명 및 사후평가	건전한 혼례 문화		5	
	② 다과 및 수료식	다과 및 수료식을 한다.		20	다과, 수료증

## V. 결 론

우리나라의 결혼준비 교육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계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문제로 인한 가족해체가 늘어나면서 여러 시민단체가 생활개혁실천협의회(생개혁)를 중심으로 국가(보건복지부)의 지원 하에 활동을 펼쳐왔다. 그 동안 생개혁에 소속된 시민 단체들의 결혼준비 교육은 새로운 결혼 문화의 창출과 올바른 결혼상(結婚像)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표2 참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가정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어지는 불화와 부적응의 파장은 헤아리기 어려우며, 그 가운데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결혼관의 변화는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은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에,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은 국가 사회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관심사이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결혼준비 교육은 그 과제중의 하나로서 건강하게 기능 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을가를 성찰하는 기회이고, 자신을 의미 있게 전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좀더 단순화시키고, 좀더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결혼을 생각하는 남녀에게 주체적인 결혼관, 긍정적 결혼관, 계획하는 결혼, 공감하는 결혼, 거품 없는 결혼, 진솔한 관계향상을 위하여 나 자신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발전적 변화를 갖는 자기 인식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6개의 session으로 구성하고 가능한 많은 활동 워크시트를 통해 참여자의 동참을 유도하도록 한다.

- session 1 (결혼 이해하기) : 결혼생활, 생활 주기, 생활설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결혼관을 정립하고 결혼에 대한 소신을 갖도록 한다.
- session 2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 : 자신을 알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객관화 시켜봄으로써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을 일깨우도록 한다.
- session 3 (멋진 인생을 위한 자신 가꾸기) : 건강한 마음의 자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른 몸가짐과 매너로 승화하여 상대와의 관계를 한층 호감 있게 발전시키도록 한다.

- session 4 (관계 향상 대화법) : 상호 작용의 최고수단은 대화임을 이해하고 그 원리와 기술을 숙지한다.
- session 5 (건강한 성을 위하여) :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부부의 성을 이해하고 성생활을 통한 건강한 자녀 출생을 설계한다.
- session 6 (자신의 혼례 디자인) : 건전한 혼례를 실현하고 부정적 혼례의 폐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혼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기 계획을 세워 본다

이상의 6개 session의 구성상 특성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결혼에 대한 주체자로서의 마음의 자세(session 1, 2)와 상호작용을 돕는 행동(session 3, 4)과 실천적 기술(session 5, 6)이 모여져서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들은 계속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 단체를 통하여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수법 및 교수매체 개발과 세분화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원활한 인원모집과 홍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를 기본으로 하여, 인터넷 동호회등에 관련공지를 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함께 이용하여 홍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혼준비 교육이 사회적으로 더욱 공감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접수 일 : 2003년 09월 15일

심사 일 : 2003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4년 01월 09일

## 【참 고 문 헌】

- 권영석(2003). 대만, "가정교육이수해야 결혼가능". 조인스 닷컴, 라이프, 1월 8일자
- 김혜석(1990). **결혼준비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주부클럽연합회(2002).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혼인준비교실 자료집**.
- 박미경(1996).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김득성(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5(4), 47-77.
- 변은주(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생활개혁실천법국민협의회(1998).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
- \_\_\_\_\_(1999).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
- \_\_\_\_\_(2000).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
- \_\_\_\_\_(2000). **생활개혁, 제6호**.



- \_\_\_\_\_ (2001).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  
 생활개혁실천협의회(2002). 생활개혁 실천운동 종합보고서.  
 \_\_\_\_\_ (2002). 8월 21일 전문위원회의자료(미간행)  
 \_\_\_\_\_ (2003). 2003년도 혼인준비교실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자회의자료(미간행)  
 오윤자(199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교육학적 기초 (53-76). 경희가족상담교육센터.  
 -----(2001).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09-135.  
 유영주(1995).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I. 가족학연구회, 1995년 11월 월례회.  
 정미향·김득성(2001). 결혼전 관계향상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3.  
 정민자(1995).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중앙일보(2003). 대만 “늘어나는 이혼 잡아라” ‘가정학 교육’법에 명문화. 2003. 1. 9. 9면  
 지영숙(1998). 현대가족생활설계론. 학지사  
 청년여성문화원(2002).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 가시버시 혼인준비교실- 자료집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2002). 캠퍼스커플을 위한 결혼준비교실 자료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1). “결혼준비”강좌 질문지 평가내용 자료(미간행)  
 한국전례원(2003). 혼례문화개혁운동(혼인준비교실)시연 및 토론회 자료집  
 한겨레(2003). 2003. 3. 28.  
 한나라당(2003).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Mace, D(1979).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A new field. *The family Coordinator*, 24(3), 131-136.  
 Olson, D. H. & Hawley, D. H.(1992). *Prepare/ enrich self training counselor's manual. Prepare/ enrich life innovations, Inc.*